



추신수, 에인절스전 2타수 무안타 7경기 안타행진 제동... 타율 0.262

김현수, 5타수 1안타 기록
오승환은 자이언츠전 결정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의 연속 안타 행진이 7경기에서 멈췄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LA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 4회초 교체 출전, 2타수 무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최근 7경기 연속 안타를 쳤던 추신수는 이날 안타를 때리지 못했다. 시즌 타율도 0.262로 소폭 떨어졌다. 이날 추신수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카를로스 고메스가 3회말 볼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하자, 추신수가 4회초부터 빈자리를 메웠다. 추신수는 4회말 2사 1루에서 첫 타

석에 나왔다. 에인절스 선발 블레이크 우드를 상대한 추신수는 2루수 라인드라이브로 아웃됐다. 잘 맞은 타구를 때렸지만, 상대 호수비에 걸렸다. 추신수는 6회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갔다. 텍사스는 7-6으로 승리했다. 김현수(29·필라델피아 필리스)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말린스파크에서 벌어진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좌익수 겸 6번타자로 선발출전해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김현수는 2경기 연속 안타를 날렸다. 그러나 1안타에 그쳐 시즌 타율은 0.223으로 조금 낮아졌다. 필라델피아는 3-1로 이겼다. 한편,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결정했다. /뉴시스

전인지 “에비앙 갈 준비 됐다”

전인지(23)가 시즌 첫 우승 기회를 아쉽게 놓치며 5번째 준우승에 머물렀다. 하지만 패조의 사감과 경기력으로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전인지는 4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콜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6476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컴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만 6개를 기록하는 노보기 경기를 했다.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로 미국의 베테랑 스테이시 루이스(20언더파 288타)에게 아쉽게 1위를 내줬다. 2015년 'US 여자오픈'과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 등 통산 2승을 메이저 우승으로 달성한 전인지는 올 시즌 정상급 기량에도 불구하고 우승과 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3월 '파운더스컵', 4월 '롯데 챔



IPGA 5번째 준우승
2연패 정조준 '자신감'

피언십', 5월 '킹스밀 챔피언십'과 6월 '매뉴라이프 클래식'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준우승만 5번째다.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지만 8번째로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 평균 타수 부분 4위를 달리며 언제든지 우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인지는 지난 7월초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이후로 5개 대회 연속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이중 4개 대회에서 25위권 밖으로 벗어나며 부진이 지속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2주간의 휴식을 보내고 첫 출격인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사흘 연속 선두 자리를 지키는 등 3위를 하며 경기력을 회복했다. 이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준우승하며 시즌 첫 승이 멀지않았음을 알렸다. 특히 이번 대회 전인지의 경기력

은 완벽에 가까웠다. 나흘 동안 보기가 단 2개에 불과했다. 2라운드 첫 번째 홀 보기를 마지막으로 53개 홀 연속 노보기 경기를 했다. 마지막 날 선두 루이스에 4타 뒤져 출발했고, 전반에 버디 3개를 잡아내고도 좀처럼 타수 차가 좁혀지지 않아 힘든 경기를 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에 나서며 마지막 2개 홀을 남기고 1타 차로 따라 붙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연출했다. 비록 역전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경기력과 사감을 완전히 회복한 전인지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의 타이틀 방어를 위한 청신호를 켰다. 전인지는 "브리티시 오픈 전에는 평정심을 찾지 못했는데 지금의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고"며 "이제 골프를 더 즐길 수 있고 에비앙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뉴시스

김남길·김아중 '명불허전' 시청률 7% 돌파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tVN 주말드라마 '명불허전'(극본 김은희·연출 홍종찬)이 시청률 7% 돌파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4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명불허전' 8회는 케이블·위성·IPTV 통합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 평균 6.4%, 최고 7.3%를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TNMS는 이날 방송분이 4주 만에 최고 시청률(유료가입 가구) 4.8%를 기록하면서

비지상파 시청률 순위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허임(김남길)과 두철(오대환)이 평판에게 불 잡혀서 목숨만을 살려달라며 간곡한 부탁을 할 때 장면(밤 10시17분)으로 시청률이 5.7%까지 치솟

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다시 조선으로 간 허임과 최연경(김아중)의 고군분투가 펼쳐졌다. 첫 번째 조선행이 엄청난 상황 속 웃음을 자아냈다면 두 번째 조선행은 허임의 숨겨진 과거사와 여러 사건들이 얽히며 휘몰아치는 전개가 펼쳐졌다. tVN 주말드라마 '명불허전'은 집을 든 조선 최고의 '침의' 허임 역의 김남길과 메스를 든 현대 의학신봉자 홍부외과의 최연경 역의 김아중이 400년을 뛰어넘어 펼치는 조선왕복 메디칼극이다. 매주 토·일요일 밤 9시 방송. /뉴시스



박은영, 라디오 첫방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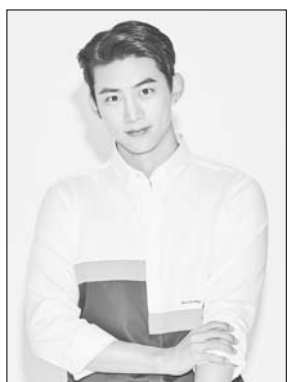
박은영 KBS 아나운서의 FM 대행진 라디오 첫 방송이 KBS 총과업 여파로 불발됐다. 당초 박은영 아나운서는 육아 휴직을 낸 황정민 아나운서의 후임으로 4일부터 'FM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이날부터 총과업에 돌입함에 따라 박은영 아나운서는 방송에 불참했다. 대신 성우 이다슬이 출연해 프로그램 이끔었다. 이다슬은 "박은영 아나운서 대신 현재 방송사 사정으로 잠시만 방송을 맡게 됐다"며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새노조)는 이날 '공영방송 정상화와 경연진 사퇴'를 조건으로 연대 파업에 들어갔다. 양대 공영방송사 노조의 동시 파업은 2012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뉴시스

“입대를 명 받았습니다”

2PM 옥택연, 현역 입소

한류 그룹 2PM 멤버 택연(29)이 입대했다. 4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옥택연은 이날 현역으로 입소했다. 옥택연은 애초 조용한 입대를 위해 날짜와 훈련소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날짜는 알려졌으나 장소는 끝까지 비공개로 부처졌다. /뉴시스

택연은 가족, 멤버들의 배웅 속에 훈련소로 들어갔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택연은 입대를 위해 영주권을 포기했다.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관정을 받았으나 수술까지 거치며 현역 입대를 결정, 주목받았다. 택연은 지난 2008년 2PM 멤버로 데뷔한 이후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물로서도 활약했다. 현재 방송 중인 OCN 드라마 '구해줘' 촬영을 이미 마쳤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